

인인불신신인

본래 ‘윤리’(倫理)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에서 ‘사람사이[인간(人間)]의 이치(理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만 가지고는 ‘윤리’를 바로보기에 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이치’(理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을 찾아보기에, 먼저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도리[道理, 또는 조리(條理)]’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도리’(道理)는 무엇일까요? 또 찾아보니 그것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를 종합할 때, 윤리는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로서 사람이 그 정당한 도리로서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로서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한편 영어로 윤리는 ‘Ethic’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뜻은 ‘안정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렵기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윤리를 그냥 우리식대로, 그렇지만 뜻이 다치지 않게 편하고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人人人人人’이라고요.

이 말을 풀이하면 “사람이면(人), 다 사람이냐(人), 사람이(人), ‘사람 같은 일’을 해야지(人), 사람이지(人)”가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글귀는 ‘사람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은 일의 정체를 밝혀야 사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으로서 윤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로서 마땅히 취급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오만에서 비롯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에서 필자는 사람만이 생각, 언어, 도구, 사회 등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보겠습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제인 구달(Jane Goodall, 1936-) 박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동물 생태학자입니다. 제인 구달의 인생역정을 통하여 우리는 윤리의 주체로서 사람의 정체와 본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인은 어려서부터 동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인은 케냐농장

에 있는 친한 친구로부터 초대편지를 받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인은 우연히 숲속을 거닐다가 문득 침팬지를 직접 연구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품고 이윽고 마음을 다잡아 그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인의 결단에 쏟아진 주위의 무관심과 조소(嘲笑)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할 수 있는 밑바탕도 없이, 전문성이나 체계도 없이, 그저 사람과 똑같은 이름을 침팬지에게 붙여두고 무작정 침팬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 모습이 무척 한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그것도 엄격한 질서 하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는 침팬지의 탁월한 두뇌와 사회성을 발견하고 그 성과를 시나브로 세상에 내보이게 됩니다.

이후 이 같은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학문적 성과는 전 세계 동물생태학자들로부터 주목받기에 이르고, 마침내 제인은 세계적 동물생태학자로, 특별히 침팬지 연구의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거대한 대지적(大地的) 상상력, 자연의 회복능력에 대한 경이로움, 시간을 초월하는 숲속의 평화,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단조롭고 분명한 삶 등을 서구사회의 물질주의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며, 끔찍하게 소모적인 전쟁 등과 대비시켜가면서 사람과 인류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인이 침팬지에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의지에 장장 40여년이 넘는 세월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 아닌 그가 붙여준 이름으로서 어미침팬지 ‘플로’(Flo)와 아기 침팬지 ‘피피’(Pipi)가 보여준 모자간의 각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케냐(Kenya) 고크(Gombe)의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플로’라 불리는 어미침팬지가 숨을 거두자, 어린 아들 ‘피피’가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연이어 ‘피피’는 몇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은 어미의 등에 매달려 때로는 손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윽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또한 어미의 뒤를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침팬지 또한 사람의 본성에 상응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혈육 간의 애정을 보여준 슬픈 단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인 구달이 40여년의 세월을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인이 발견한 침팬지의 사회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례로 침팬지 사회에서도 부족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으며, 비록 같고 닮아 그들 스스로가 만들거나 개량한 것은 아니지만 돌을 도구로 사용하여 열매의 내용물을 취하거나, 긴 나뭇가지로 땅 구멍을 들쭉서 거기에 붙어 타고 오르는 흰개미를 훔쳐 손쉽게 먹잇감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회성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숲속의 평화 속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나,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람의 오만에서 비롯되어진 사회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순수(純粹) 자체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제인은 침팬지로부터 얻은 교훈을

그의 저서 ‘희망의 이유’(Reason for Hope : A Spiritual Journey)를 통해 사람을 향하여 사람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람’을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정의는 것은 결단코 틀린 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사람의 오만(傲慢)과 독선(獨善)에서 비롯된 유치(幼稚)하고도 저급(低級)하기 이를 데 없는 정의라고 밖에는 달리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동물보다 고귀한 존재’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자 통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철학적인 변론(辯論)과 원리(原理) 등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어떠한 수사(修辭)를 이에 결부시켜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人人人人’이라는 명제에 담긴 뜻은 저 멀리 강 건너 요원한 곳에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과연 그 뜻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 같은 일’의 정체는 어떻게 바로 새겨 두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뱃속깊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윤리관이나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본래 불교도, 개신교도, 구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름지기 ‘유교’와 ‘민간신앙’이었습니다. 곧 삼강오륜(三綱五倫)이나 전래된 도덕(道德) 등이 실체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가이드역할을 해준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사회의 관습이나 풍습 그리고 안정성에 반하는 것들이나 깨칠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윤리(倫理)의 반대편에 서 있는

패륜(悖倫,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으로 취급되어 결코 용납되거나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체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느냐가 '사람됨의 기준'이었고 '사람 같은 일'의 핵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를 인식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행하지 않고 있는 패륜의 주체들에 대한 구속[拘束, 제재(制裁) 또는 강제(強制)]의 끈이 느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신의 부모나 웃어른에게 샅대질을 하고, 욕한다고 해서, 또는 남들에게 국가원수나 심지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신변에 어떠한 제재나 구속은 없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정체는 과연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사람이 사는 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앞선 '人人人人人'을 유일한 단서로 삼아 그 정체와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서의 '人人人人人'을 우리의 신앙(信仰, 믿음)에 빗대어 치환하면 '信信信信信'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신앙'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 의미에서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이 경우 '받드는' 것의 실체는 믿음(신앙)의 주체로서 '사람의 태도'가 되는데, 그것은 두려움, 경건, 자비, 사랑, 의뢰심 등입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믿음)을 통해 그 주체로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信信信信信'을 '人人人人人'과 같이 마찬가지로 뜻풀이를 해보면 "믿음이면(信), 다 같은 믿음이냐(信), 믿음이(信), '믿음 같아야'(信), 믿음이지(信)"가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글귀는 앞선 것에서와 같이 '믿음

같아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같아야'의 정체를 밝혀야 신앙의 주체로서 사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윤리를 바로 세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같아야'의 정체를 밝힐 수는 있을까요? 필자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 그 정체를 찾아가 볼까 합니다.

라틴 신학의 시조로서 테르툴리아누스(Tertulian, *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55-230)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교부(敎父)이자 평신도 신학자로서 이름을 후세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고 생경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립(定立)하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곧 믿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거나 믿을 수 있을 것이기에 자신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믿는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한갓 저급한 신앙으로 치부하였던 그리스계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제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니까, 그러기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저변에는 그렇게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信信信信’에 옮겨 보면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믿음이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그렇다”고 보아 다름없이 수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필자생각엔 아마도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끝이끝대로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추상같은 사실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의 주체는 성령의 역사이고 다만 우리는 그 역사에 따라 믿음을 담고 있는 객체로서 그저 사람일 뿐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사람과 침팬지가 사람과 동물로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대상이나 아니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이 사람됨은 그 사람의 마음 한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같은 일’의 해(解)는 구해진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믿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 같아야’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상식으로선 결단코 ‘믿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앞에서 이야기 있듯이 “구속[拘束, 제재(制裁) 또는 강제(強制)]의 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지옥’(음부, 스올)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지옥이 대가로 치러집니다. 이 경우 ‘지옥’ 또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단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는 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동물보다 고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같아야’의 뜻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같아야’로 바로 새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리(倫理)는 ‘사람사이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되새겨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족을 덧붙이기에 패륜(悖倫)은 ‘사람사이의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을 조합하여 한문으로 나타내면, ‘人人不信信人’, 곧 ‘사람이면(人), 다 같은 사람이나(人), 믿지 못하는 일을(不信), 믿고 있어야(信), 사람이지(人)’로 새겨둘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03:16-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내로라하는 사상가들의 변(辯)이 다음과 같다면
우리가 이를 어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때 써야할 단어가 바로 패륜(悖
倫)이 아닐까요?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그 혀에 델 수 없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말입니다(눅 16:24).

“나는 영혼과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다. 당연히 인생은 한정적이다. 그렇기
에 오히려 귀중한 선물이다.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매순간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셸리
케이건, Shelly Kagan)

“예수는 글을 읽지 못했고, 산상수훈을 말하지 않았다. 예수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한 일이 없다. 예수의 시신은 야생 개들에 의해 먹혔다”(존 도미니크
크로산, John Dominic Crossan)

“성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는 성서 기자의 윤리적 이상형에
대한 투사이다”(로버트 펑크, Robert Funk)

“예수의 말이라고 믿을 수 있는 말은 2%, 아마도 예수의 말은 14%에
불과하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 중 82%는 허위이다”(버튼 맥, Burton
Mack)

“첫째, 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넷째,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 다섯째,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수록 희망이 있다.”(김용욱)